

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3년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 "외교 최일선 재외공관장 역할 막중...외교 역량 결집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27.일부터 3. 3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3.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본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 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부연했다.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의 국의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수출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회의 주제가 게시됐다.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 광주시 동물학대 현장 방문. '동물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 만전 강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농장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오전 현장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농장에서 구조한 동물 50여 마리는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조치할 계획인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의 현장 조치 및 동물의 사육환경 상황을 살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사건을 적극 단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고, 전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신설했다.

도는 향후 3월 말까지 도내 반려동물 생산업, 위탁관리·판매업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를 대상으로 보호 관리, 동물 생명존중 의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최근 양평, 광주 등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관련 부서는 반려동물

학대가 우려 되는 영업장 일제 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동물 학대가 발생한 농장에서 구조된 동물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인근 반려견훈련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업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노령은 퇴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상북도 UNESCO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비전선포식 개최

경북 문화를 통해 확실한 지방시대 견인

경북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화백당)에서 '경상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장 및 세계유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참석해 '경상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래전략 2030' 계획 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다졌다.

경북도에서는 '세계유산 미래전략'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계유산 관련 17명의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세계유산 보유 시장·군수들이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협약식도 가졌다.

지난해 말 내방가사와 삼국유사가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도내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음이 포함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민들의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졌다.

연이은 등재 쾌거는 경북이 세계유산의 중심지임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특히 하회마을의 경우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세계유산/무형유산/기록유산)를 모두 보유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지난 1월 도청 문화유산과에 세계유산 전담팀을 신설하고, 10년 단위의 세계유산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됐다.

"세계 속의 K-Heritage 육성"을 비전 목표로 삼아 세계유산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세계유산 미래전략의 주요 7대 핵심과제로 △세계유산 외연 확장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유치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화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메타버스)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주목된다.

경북도에서는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경북의 탁월한 세계유산을 앞세



워 미래 경북의 문화관광 생태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올해 9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으로 세계유산(태실, 누정), 기록유산(만인소, 편액), 무형유산(한지·전통 활판 인쇄) 등 신규 유산 발굴을 통해 경북을 명실공히 세계유산의 중심지로 우뚝 세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세계문화유산 콘텐츠를 타워로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버금하는 유교책판 수장시설로서 '천년 유교경전각'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첨단시설을 도내에 유치·건립함으로써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의 미래모형을 경북에서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신라왕경 복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디지털(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고, 경북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모델로 신라왕경 역사가 로길, 하회권 킨로드, 서원·산사 명품 순례길 등 관광코스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세계역사도시진흥원' 유치·건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혜택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

가입 기부하기 위탁결제 답례품 선택

준비물: PC, 휴대폰 계좌이체 또는 카드

* 위탁사 전가입 필수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답례품 선택

준비물: 신분증 계좌이체 또는 현금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

경기도의회 이해원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보고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해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복지정책담당 관계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양평군청 노인장애인담당 관계자들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보고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회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를 지원하며 심신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추진 배경 (경기도 특성 기반 도농복합형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필요, 국민적 관심 및 욕구 증가,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 전망, 인프라 구축 및 정비)

-서비스 목적 농업·농촌 지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하여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서비스 추진 애로사항 다 시군 대비 서비스 이용자 모집 어려움, 치유농장 접근성 부족(대중교통 취약 지역으로 자차가 없는 경우 접근 어려움)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 서비스는 언어 또는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게 언어치료와 인지 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도모하는 사업이다.

-추진 배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 성인 뇌혈관질환 발병률 증가에 따른 일상생활 복귀 지원 필요, 성인 청각장애인과 난청 진단자의 치

매 발생 위험도 감소)

서비스 목적 언어 또는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게 언어치료와 인지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도모

서비스 추진 애로사항 서비스 이용자 모집 어려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해원 의원은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서비스 추진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양평군청 노인장애인담당 관계자는 "이용자모집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장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첫 지역회의 참석

김현기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 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발족한 이후 이날 첫 지역회의가 진행됐다.

지역회의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재구 대한민국의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의장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하겠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



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 25개 자

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광수/기자

광명시의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

광명시의회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차량기지를 이전하면 구름산과 도덕산의 산림축이 훼손됨은 물론 경기도 최대규모의 노온정수장을 오염시킨다"며 "이는 다수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0년과 2022년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했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역행이며 주민주권시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 구로구의 민원을 광명시로 전가시키는 행위"이라며 "밀



어붙이기식의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공정과 상식에 따라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고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신규 임용 정책지원관들과 소통간담회 가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27일 목포시 한 식당에서 2023년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과 3월에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격려하고,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조직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 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수의 2분의 1, 즉 전라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30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작년에 16명, 올해 14명 등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지방의회 권한과 관련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동욱 의장은 정책지원관들이 의회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일일이 챙기면서,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하반기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정책전문가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발굴 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해명/기자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 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 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건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였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시

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간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경북도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양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 꼼꼼하게 살필 예정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4.6일부터 4.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조지영 시의원을 비롯해 박성종(공민회계사), 정성문(세무사), 신형일(세무사), 전경호(세무사) 총 5명이다.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위원들은 검사기간 동안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별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목적에 적합한 집행,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 및 개선됐는지 여부도 검사하게 된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민을 대신해 안양시의 연간예산과 재정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살펴보고 평가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결산검사에 임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양시의회는 6월 초 결산검사보고회를 통해 의원, 위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물은 6월 1차 정례회 결산심사 승인 시 의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화성시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 참석

화성시의회는 27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제5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시상 및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의회에서는 김경희 의장, 이계철, 이용운, 임채덕 의원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 남부지회 회원 등 100명이 참여해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코로나로 힘든시간, 긴 터널 잘 버티고 견뎌오신 것에 대해 통감하며 위로를 전한다."

이 자리가 새로운 외식 문화 트렌드에 대비하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요식업조합연합회로 1955년 이래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의 증진을 위한 식문화 향상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양시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제 부:대선 (114)	요 기 기 부:대선 (118)
	스 포 츠 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파구, 전국 최초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 자체 개발...5개 기관에 판매해 구세입 확보!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서초구 등 5개 기관에 판매해 구세입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보조인력 수요 증가로 각 기관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공서에 최적화된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체감해 2021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2021년 11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인제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송파구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당, 급여 및 근무상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근로자는 전산에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사업명과 인력을 일괄 등록하고 각 부서 사업 담당자가 매월 근무 상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계적인 임금 계산과 근무 기록의 전산화, 개인정보 보호 기능까지 갖추어 직원과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

구는 2022년 4월부터 프로그램을 구정에 본격 활용하며 421개 사업

1,600여명의 임금관리를 체계화했다.

전국 최초 '송파구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전국 시군구의 문의가 이어져 전국 시군구로 대상으로 총 3회의 프로그램 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지난해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 중 5개 기관 서초, 영천, 정선, 화성, 당진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1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특히 한 기관의 경우 민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송파구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 수급을 결정하여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6개 기관이 참여한 3차 보급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추가 보급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하반기에 4차 보급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수한 첨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구정을 넘어서 전국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진정한 업무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첨단 행정을 구축하여 송파구를 살기 편한 행정혁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서초 청소년, 유튜브·PD 꿈꾸는 '멀티미디어 창작소' 오픈

"서초구 멀티미디어 창작소에서 유튜브·PD 체험하며 꿈 이루세요." 서초 청소년은 디지털 미디어 인재양성소 '서초 멀티미디어 창작소'를 다음 달 10일 개관한다.

'서초 멀티미디어 창작소'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등을 위해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환경을 제공코자 서초동(강남대로49길 10, 지하1층)에 약 50㎡ 규모로 마련했다.

이곳은 고화질 촬영 및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호리존을 비롯해 △크로마키 스크린, △카메라 등의 장비, △제작된 콘텐츠를 조정·편집하는 편집실까지 갖춘 미디어 창작 플랫폼 공유소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학교 방송부와 교과 과목의 과제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다. 또, PD, 촬영감독, 아나운서 등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미디어 직업과 진로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서초구청 교육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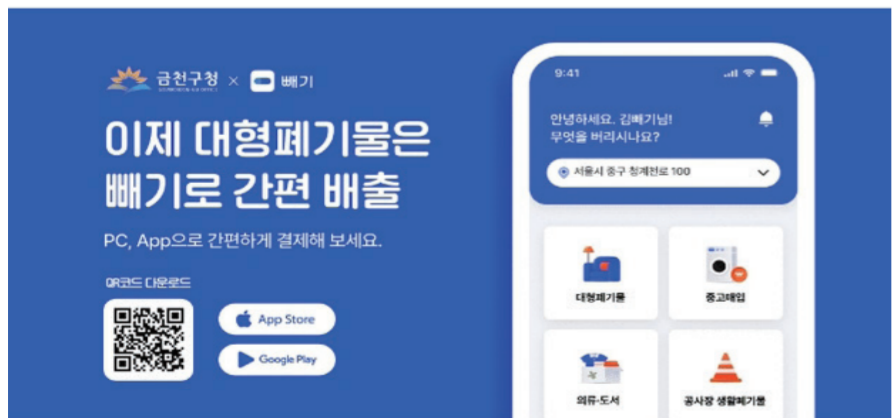
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사전신청하면 하루 2팀, 팀당 최대 4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학생, 교사, 교육관계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초·방배 유스센터에서도 최신미디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서초스마트유스센터의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는 크로마키 배경에 뉴스 스튜디오나 공연장 등 가상 배경을 입혀 메타버스 환경에 나타나도록 했다. 이곳에서 아나운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인 서초톡톡TV도 운영하고 있다. 또 방배유스센터의 '통통TV'(미디어크리에이터실)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스튜디오 대관을 무료로 해주며 팟캐스트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멀티미디어 창작소'가 지역내 청소년들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련분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꿈이 한 발짝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금천구,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간편해진다



금천구는 3월 27일부터 모바일로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뽀기'는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을 촬영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고 집 앞에 배출하면 구에서 수거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중고 가구와 전자제품을 지역 내 전문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하는 '중고매입' 서비스도 제공하고, 대형폐기물을 옮기기 힘든 노인과 여성을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배출해 주는 '내려드림' 유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기존에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방식인 인터넷 신청, 실물 신고 필증 구매 후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에 전화로 신고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뽀기' 앱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신/기자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제안 공모전... 총상금 2천 5백만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3.22.~4.21.)...총 상금 2,500만 원 수여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와 미래 위협을 최소화하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4월 21일까지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식량 부족,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협까지 초래하는 상태인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141.5mm의 비가 내려 서울의 역대 최고 강수량을 갱신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IPCC 제6차 평가보고서, 2023.3)에 따라 시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및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2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물관리, 시설물,

생태계 및 건강 등 4개 분야에서 총 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추가로 반영해 기존 적응대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단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단체, 팀별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총 3가지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제안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공모주제에 대해서도 1개 제안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주제는 ① 극단적인 날씨(폭염, 폭우, 한파, 가뭄)로 인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② 기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관리, 시설물, 생태계, 건강 부분의 위험 요소(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③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다.

응모 방법은 서울시 또는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 작성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모문에 나와있는 지정 누리집(구글폼) 주소에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심사는 제안의 적합성, 실행 가능성, 구체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2단계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8명(팀)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최우수 수상자(팀)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서울특별시 상장을 수여한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4월 27일 개별 통보 예정이며, 1차 서류심사로 선정된 16명(팀)은 2차 발표심사를 받기 위해 대면 발표(PPT 등)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심사는 5월 4일 대면 발표로 진행하며,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서울시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5~6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우수 제안 8명(팀)에게 총 25백만원의 상금과 서울특별시 상장이 수여된다.

서울시는 입상 제안서가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 유관기관(부서)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매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민 제안 공모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트윈세대 사로잡는다...트윈세대 공간 주민 설명회 개최

선유도서관 트윈세대 전용 공간 조성, 12월 개관 예정

영등포구가 선유도서관 트윈세대 공간 리모델링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간 구성안을 설명하고자 오는 29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도서관문화재단 씨앗과 선유도서관에 트윈세대(12세~16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트윈세대 공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구는 트윈세대가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본격적인 설계 및 시공에 앞서 주민들에게 트윈세대 공간인 '스페이스 T'와 선유도서관 전체 공간 구성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선유도서관 운영 현황과 리모델링 추진 방향, 전문가 의견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선유도서관 5층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28일까지 선유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한 테마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차해업 미래교육과장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아이들과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트윈세대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도서관을 독서와 학습 공간을 넘어 다양한 연령을 위한 문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영등포를 전 연령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포용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관악구, 편리한 장애인 여행 위해 관광활동 이동비 지원

관악구가 봄나들이철을 맞아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편리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 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지정된 장애인버스를 타고 문화·여가 활동 시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연 최대 3회까지(1회당 최대 50만 원, 2박 3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 및 모임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버스는 ▲서울시설공단 '서울장애인버스' ▲서울관광재단 '다누리버스', '다누리 미니밴'으로 운전원도 함께 지원되며 운행지역은 전국 육상 운행 가능 지

역이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버스 운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버스 예약 및 이용 후 버스 예약확인서, 이용자 명단, 영수증과 탑승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 비용' 사업으로 활동 저하 및 고립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2004년생 청년에게 연 20만 원 청년출발지원금 지원

서울 성동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년출발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성년출발지원금은 올해 기준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동구에서는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청년(만 19~39세)의 인구는 성동구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매년 평균적으로 약 2,000명의 청소년이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대다수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청소년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성년으로서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와 책임, 권리가 이제 갖 청년이 된 청년들에게는 생소하기 마련이다.

이에 성동구는 자기 개발이나 문화체육 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한 성년출발지원금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성년으로서의 출발을 응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간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는 구와 협약을 맺은 관내 문화·예술·체육·진로·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목록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 지원 정책은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시대가 변함만큼 청년 대상 복지정책을 다양화하고, 수요가 높은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체감할 수 있는 청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시흥시 대야신천권, '주인 없는 위험간판' 일제 정비 추진...시민 안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태풍 및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무연고 노후 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이번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여름철 풍수해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 및 노영업장 폐업, 이전 및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사업장의 간판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부가 주관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 달간 조사된 '주인 없는 위험간

판'은 총 23개소 시설로써, 오랜 시간 방치돼 주변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됐다. 이에 센터는 조사된 노후 간판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박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이번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사업의 경우 상권 지역에서 제보가 많았던 만큼, 시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원도심 내 골목 상가거리의 경관 회복으로,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안성3.1운동기념관 유물 기증자 기증식



지난 23일(목) 안성시장에서 안성3.1운동기념관 유물 기증자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증식은 소중한 자료를 기념관에 기증해주신 기증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참석한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기증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증은 이종우 (현)광복회안성시지회회장의 △독립유공자 이진영 선생 훈장증, 원우선 (현)광복회안성시지회 운영위원의 △독립유공자 이발영 선생 훈장증, 독립유공자 이진영 선생(1891~1933)은 원곡.양성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독립유공자 이발영 선생(1880~1949) 또한 원곡.양성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두 분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안성

의 독립운동가이다. 한편 안성3.1운동기념관은 기증 캠페인 '드림(Dream)'을 통해 2019년 △독립유공자 최재석 선생의 건국훈장(애족장)의 6건, 2020년 △독립유공자 안기봉 선생의 대통령 표창, 2021년 △독립유공자 윤영삼 선생의 건국훈장(애족장), 2022년 △독립유공자 이치순 선생의 대통령 표창 기증이 이루어졌으며, 기증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기증에 참여할 수 있다. 기증받은 유물과 자료는 전시·연구·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보존 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물 및 자료의 경우 복원 수리하여 영구보존 된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감사패 및 기증서를 수여하며, 시민들과 기증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명패와 핸드 프린팅을 제작하여 기증자 예우 공간 '드림(Dream)'에 전시한다. 조혜영/기자

안산시, 클린투어 4년 만에 재개...20명 이상 신청 시 버스지원

안산시는 다음달 3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과 폐기물 처리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 '2023 클린투어'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클린투어는 시민들이 자원재활용의 소중함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지 4년 만에 재개됐다. 클린투어는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견학하며, 시

청소행정 관련 전반적인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해설, 동영상 시청,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안산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0명 이상이 단체로 클린투어를 신청할 경우 45인승 버스도 지원된다. 흥기봉 자원순환과장은 "클린투어로 많은 시민들이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느끼고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참여자 모집...일 경험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매칭은 물론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참여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 원)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직장 예절교육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내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3천여 명을 모집한 뒤 최종 75명의 청년을 정

규직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번 1차 모집에는 지난해까지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던 33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들과 연결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더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오는 5월 예정된 2차 모집부터 일과 삶의 균형, 합리적인 임금 등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소를 꼼꼼히 파악한 후 이를 기업 모집 평가표에 반영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도스(toss) 앱 내 배너광고를 활용한 '타기형 홍보' 또한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거주지·나이·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 청년 구직자를 특정해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 경험 종료 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청년 보호장치'도

신설한다. 기업이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인턴 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24년도 참여기업 모집 시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공고문에 추가할 예정이다. 안치권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사업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라며 "앞으로도 매치업 사업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청년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08명의 청년이 연결됐으며, 입사 포기자, 중도 퇴사자를 제외한 59명 전원이 일 경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만 18~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잡코리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매칭은 물론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1차 채용공고
지원기간: 2023.3.28~4.12

대상: 만 18~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지원처: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시·군·구 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잡코리아) 또는 오프라인(지원처)
지원서류: 자기소개서,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인턴계약서, 인턴근로계약서, 인턴수령서, 인턴수령서(인턴수령서), 인턴수령서(인턴수령서)

문의: 120-120(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콜센터) 또는 120-120(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콜센터)

이상일 용인시장 강연에 용인도시공사 임직원들 "유익한 시간 감사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24일 용인도시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미술과 예술에 관한 지식 나눔'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도시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미술 작품에서 출발해 작가의 인생 스토리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평소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된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 이를 공사 임직원들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다"라며 "준비한 내용 즐겁게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는 강연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최상' 이었다고 전했다. 시장이 직접 특강을 진행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며, 자치 지루해질 수 있는 원론적인 주제에서 탈피해 흥미로운 미술 작품들로 1시간 30여 분간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했다. 강의를 들은 모데리는 "오늘이 강연을 통해 평소 접할 기회가 적었던 미술과 예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라며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림들이 위치한 해외 곳곳의 전시관들도 임직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시장은 그림의 가치, 작가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림이 소장되어있는 장소까지 소개해주는 등 듣는 이로 하여금 '여행 뽀뿌'를 자극시켰다. 또 다른 모주임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들과 그 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일생을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고 강연 소감을 전했다. 조혜영/기자

파주시, 봄날 임진강에서 '평화를 열다'

파주시는 4월 2일 14시, 임진강예술단의 북한문화예술공연 '2023년 평화를 열다' 첫 공연이 임진강 평화누리 공원(두루나눔 상설 무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임진강예술단은 무용, 가창, 악기 연주 등 북한에서 활동했던 재능있는 탈북 예술인으로 구성돼 2014년 창단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전국 각 지역에 북한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경기도 지정 전문 예술단체다. 북한 인기가요 '반갑습니다' 합창, 아코디언 연주, 옷 변신쇼를 비롯해 고(故) 최승희의 무용을 재현한 쟁강춤, 물동이춤 등 북한 노래와 춤으로 60분 동안 관객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엔데믹 이후 공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말 상설 공연으로 확대됐으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 도시 파주를 찾는 전국인의 실향민 가곡, 6.25 해외 참전 용사 등에게 의미가 크다. 아울러, 파주시의 주요 관광지 등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임진강, 마장호수 등에서 총 24회의 공연이 실시된다. 우은정 자치협력과장은 "임진강예술단은 북한예술 공연을 통해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봉사단체"라며, "코로나19를 벗어난 올해 더욱 활발한 공연과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평택시,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 개최

평택시는 지난 24일 소사별레포츠타운에서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를 실시하여 도시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협업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는 남부, 북부, 서부 3권역별로 나무심기행사를 진행하여 북부는 3월 23일에, 남부는 24일에 진행했고 서부는 오는 30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녹색평택 그린트러스트, 도시숲 시민학교, 평택시 시민정원사,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평택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남부노인복지관,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평택초등학교, ASML 등 15개 단체, 기업과 시민 등 310여 명이 참여해 자살충, 영산충, 산철쭉 등 1정장선 시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관객자분들께 감사하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도시 녹화운동을 활성화하여 도시숲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평화를 열다
임진강예술단 4월 주말 공연
매주 일요일 14시 임진강 평화누리 상설공연장

파주시 문화재단 후원
120-120(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콜센터) 또는 120-120(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콜센터)

광명시,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이노비즈(Inno-Biz) 인증 수수료 지원 추진

광명시는 관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경쟁력 확보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하며 이노비즈 인증제도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제도를 말한다.

이노비즈 인증은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이노비즈협회에서

부여한다. 이노비즈 기업은 정기세무 조사 유예, 납세 유예, 경기도 및 광명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노비즈 인증을 취득한 관내 중소기업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명시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수수료의 70%인 53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고품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인천시, 봄맞이 연안 정화 나서

인천시가 민간환경단체 및 어촌계원과 함께 봄맞이 연안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인천광역시 27일 중구 실미도 해안에서 중구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환경단체, 지역 어촌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스티로폼, 페이거, 페트병 등 육지에서 밀려온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 연안정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종도 및 옹진군 도서지역 해안을 대상으로 약 3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바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정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영종봉사단 △가톨릭환경연대 △백령도를사랑하는모임 등 3개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강화-인천연안-옹진 등 권역별 민간 연안정화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민간단체 및 시민과 함께 해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연안정화활동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고 해안쓰레기에 취약한 실미도 해안 및 인천연안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바다킴이 사업 등을 병행하여 해양환경정화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를 포함한 관련 행정기관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앞으로 도로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협력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김준남/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속하게 추진해 시민 불편 최소화해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에서 열린 '대우평지구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현황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문을 열고,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가 진행되면 지하차도 일일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스타필드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화산지하차도 인근 주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연장공사로 화산지하차도 상승 침수 문제가 해결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적인 폭우가 오더라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침수 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로 1-25호선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로 화산지하차도를 길이 539m, 폭 25m로 연장하고, 상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2단계는 기존 지하차도와 접속하는 도로 교통광장(길이 126m)을 개선하는 것이고, 3단계는 호매실 방향(길이 370m), 광교 방향(길이 278m) 버스램프(연결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1·2단계 공사 사업시행자는 (주)케이티엔지, 시공자는 (주)대우건설이다. 3단계 공사는 국가철도공단 위수탁사업이다. 올가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공사로 상승침수구역이었던 화산지하차도 내 집수정(集水井) 면적도 넓어진다. 현재 집수정은 면적이 83㎡로 강수량이 시간당 40mm가 넘으면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집수정 면적이 대폭 늘어나고, 펌프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주)케이티엔지, (주)대우건설, 스타필드 관계자, 김영진(수원시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고양시,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확대 예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후 화정, 행신지구 사전컨설팅 시행 확대

고양특례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되어,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1기신도시(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논의되어왔고 예산도 그에 따라 수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화정·행신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통합재건축과 개별단지별 재건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2월 17일 국토부 보도설명 자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 특별

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이번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점 부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부천시, 3대 봄꽃축제 맞아 온라인 이벤트 개최

부천시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부천 3대 봄꽃축제를 맞아 다채로운 온라인 이벤트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개설한 부천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부천시 3대 봄꽃축제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천시 3대 봄꽃축제는 부천에서 열리는 진달래꽃·벚꽃·복숭아꽃 축제를 묶어 일컫는 표현이다.

접속한 페이지 화면에 띄워진 부천 3대 봄꽃축제 관련 짝 맞추기 퀴즈를 풀면 봄꽃축제 소개 확인과 함께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가자 가운데 총 150명을 선정해 경품(스타벅스 세트 50명, CU 5,000원권 100명)을 증정한다. 참여는 오는 4월 15일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 4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또한 부천시는 3대 봄꽃축제 개최 기념 '부천햇썬 봄꽃축제 이모티콘'을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 출시한다. 부천시 마스코트 '부천햇썬'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꽃이 주는 화사함·봄이 주는 나른함·다시 깨어난 생명력을 주제로 꽃에 진심인 도시 '부천'을 나타내고 있다.

이모티콘은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친구 등록하면 4월 3일 오후 2시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총 37,5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배포되며, 내려받은 후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부천 3대 봄꽃축제는 '부천, 봄 사랑 취하다' 슬로건 아래 ▲4월 1~2일 제23회 부천 월미산 진달래축제 ▲4월 8~9일 제25회 부천 도당산 벚꽃축제 ▲4월 15일 제18회 부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 일정으로 각각 열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이번 3대 봄꽃축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풍성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부천의 축제가 시민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찾아가는 업무간담회 직원의 목소리 생생하게 듣는 소통의 시간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3.1.자 조직개편 이후 분청 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간담회를 열고 경기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8일 단독과, 29일 교육정책국, 30일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31일 대외협력국 순으로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본청 실·국장, 각 부서장과 직원이 참여해 부서별 현안과 업무 추진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직접 각 부서를 찾아가 직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시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요 업무를 부서장이 아닌 담당 팀장이 설명하고 직원이 함께 대화에 참여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업무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각 부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실행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양시, 고교학점제 시행 선도...12억5천만원 교육경비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 “고교학점제 안정적 시행 위해 단계별 교육지원 추진하겠다”

안양시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3년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으로 일반고 13곳에 총 12억 5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및 이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교육경비를 일반고 13곳에 각 1억원씩 지원했다.

이어 올해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차 기본 지원과 2차 선별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원은 고교학점제 기본 필수과정인 ▲인성·진로교육 ▲지역연계교육 ▲교과특성화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시는 관내 일반고 13곳에 5500~6500만원씩, 총 8억원을 교육경비로 교부 완료했다.

또 고교학점제 자율과정 추가 지원과 온라인 스튜디오(온라인 학습실)

공간 조성을 위한 2차 선별 지원 사업비 4억5천만원도 편성했다. 시는 4월 중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지원을 지속 추진해 명품교육 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 과정 이수 운영 제도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고등학교 졸업 기준도 출석 일수가 아닌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으로 변경된다.

신우용/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 재해 예방’ 환경에너지시설 찾아

쓰레기 900도 고열 처리 소각 작업 “경각심 가지고 안전 수칙 지켜 일해 달라”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 재해 예방' 환경에너지시설 방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 재해 예방과 작업 현장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3월 27일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을 찾았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환경에너지시설 내 쓰레기 소각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이곳에서 일하는 54명 직원(공무원 6명, 공무원직 1명, 대행업체 47명)의 근무 환경을 살폈다.

가동한 지 25년 된 해당 시설은 성남지역 9개 업체가 실고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자동화된 소각로로 옮겨

하루에 600t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900도의 고열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 작업과 폐기물 투입구를 관리 점검하는 작업이 이뤄져 화재나 낙상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내재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노후한 환경에너지시설을 보수 공사하는 한편 현 소각시설 바로 옆 6422㎡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하루 500t 규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건립하기로

한 상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1.27)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안전과 보건 수칙을 지키며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해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대구의 부흥, 대구시 공무원 미래 신기술 교육에 나선다!

첫 강연 '대구 5대 신산업 시리즈 제1강 UAM(도심항공교통)'



대구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을 맞아 미래 50년을 구상할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혁신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올해 첫 교육은 대구 5대 신산업 시리즈 제1강으로 'UAM(도심항공교통)'을 주제로 국내 항공 기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관중 교수를 초빙해 '대구의 하늘길, 미래 모빌리티의 현실과 상상' 특강을 3월 29일 오후 4시 30분에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교통서비스 수단인 UAM을 대구는 어떻게 상용화할 것인지 고민하고 '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수요일 대구 공무원이 지식을 키우는 모임으로 '수요대식회(大識會)'로 명명한 공무원 미래 혁신역량 강화교육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공부하는 조직, 일 잘하

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매달 수요일 다양한 주제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의는 대구 5대 신산업 특강을 월별 시리즈로 진행한다. 4월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비메모리 반도체, 6월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의 로봇산업, 9월은 대구의 미래, ABB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더불어, 5월에는 5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대구 시민 모두와 축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뮤지컬과 연계한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 강연으로 문화 만족도를 높이고, 10월에는 역사 속 인물을 통한 혁신사례 이해 및 적극행정 전략에 대해 교육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미래 혁신역량 교육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를 접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인식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도, 도민과 함께 관광·문화·체육 발전방향 모색

27일 '3월 도민회의' 개최해 도지사와 도민 직접 소통

경남도는 2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와 도민 10명이 도정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3월 도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불철 지역 축제와 공연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남도민 10명을 초청해 해당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관광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의 소망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도정에 건의한 정책들이 직접 반영되어 도민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조명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민회의에서는 관광,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참신한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계성 한국관광학회 회장(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은 남해안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확보, 문신미술관

확대 및 활성화를 제안했다.

윤문기 남해관광문화재단 배래길 팀장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관련해 이용자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남 전체의 둘레길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 하자는 제안을 했다.

정영진 Y캠핑 대표 대표는 캠핑인구 전국 3위인 경남에서 전국캠핑카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영재 경남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장 확보를 위해 하천 주변 환경규제를 완화해 활성화 할 것을 주장했다.

이하영 (주)아트영포엠 대표와 강나현 청년작가는 청년예술인이 경남을 떠나지 않고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남청년예술단 설립과 함께 예술 창작공간(레지던스) 조성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지난 두 차례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 37건 중 23건을 도정에 실제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도민회의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도민회의를 마친 박완수 도지사는 실국본부장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정부가 신규 지정된 국가산단의 사업시행자를 4월까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도 추진단을 발족시켜 정부관계부처 합동추진단의 세부 추진계획과 같이 연계함으로써 국가산단 조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부부들이 내 아이를 정부에서

키우기보다는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도 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도청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도민들의 제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도청광장과 수목공간, 건물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쇼와 빛과 관련된 조형물을 조성해 야간이나 휴일에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자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향 가치 담은 '웨이브' 플랫폼 활성화 추진

부산시는 지난 17일 개설한 '웨이브(thewave.net)' 플랫폼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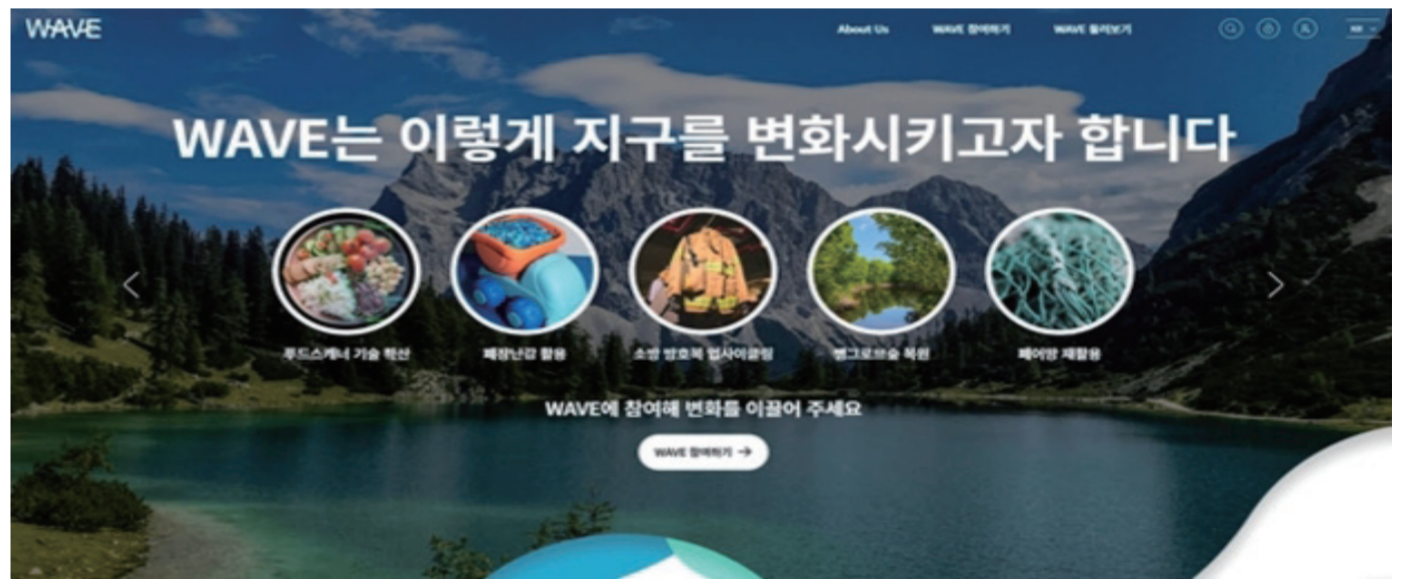
웨이브는 대한상어가 대한민국 부산이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미리 선보이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만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구촌의 모든 이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소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으로 발전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모색할 수 있다.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하나의 '솔루션 플랫폼'으로서의 세계박람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차별화 전략 중 하나다.

이번 웨이브 플랫폼 개설은 이러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가치를 담아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갈 사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부산 이니셔티브의 실천적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치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적극 활성화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우선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관련 전문가, NGO, 기업 등으로 이 플랫폼을 확산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플루언서, 오피니언리더 등과 협업해 웨이브를 알리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도 이벤트를 열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외국인 서포터즈를 활용해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는 등 해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웨이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당위성과 전 세계를 위한 대한민국 부산의 비전을 담고 있다"라며, "세계인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또 하나의 세계박람회'인 웨이브를 통해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웨이브는 참여방식이 간단하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WAVE 참여하기]를 통해 우선 관심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범위(글로벌, 국가, 지역)와 주제를 지정한다.

주제는 환경, 기후변화, 친환경에너지, 교육, 의료·위생, 장애인·아동, 동

시·사회인프라, 기술혁신, 빈곤·기아 등 10개 키워드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각 나라의 언어'로 자유롭게 서술하면 된다.

타인의 제안글은 [WAVE 둘러보기]를 통해 WAVE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주제에 대해 이미 수십여 개의 제안이 올라와 댓글과 대댓글로 활발하게 소통 중이다.

또한 대한상어의 이에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계정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송중진/기자

울진군, 3월 민선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회의 개최



울진군은 24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 부군수, 국장, 관·실장, 현안 및 공약사항 담당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하여 민선 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형 특성과 대학 유치,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사업 운영, 귀농 대책 총괄 조정(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추진방안), 귀어 대책 총괄 조정 등 4개 주요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이행 상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상호협업의와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형 특성과 대학 유치는 2단계 계획수립으로 추진에서 취업이 가능한 방안, 경로당 공동급식 시범사업 운영은 세밀한 계획수립과 원칙 결정, 귀농 대책 총괄 조정은 발농사에도 기계화를 통한 경작환경 조성, 귀어 대책 총괄 조정은 귀농 대책과 조건이 같아야 하므로 농정과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문화/기자

'2023년 찾아가고 싶은 봄섬'에 경남도 '통영 한산도' 선정

찾아가고 싶은 섬 참여이벤트 개최... '봄섬 인증샷', '사계절 인증샷'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에서 선정한 '2023년 찾아가고 싶은 봄x섬' 5곳 중 '통영 한산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알리기 위해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봄섬 9곳, 여름섬 15곳, 가을섬 9곳 총 33개 섬을 선정하여 소개·홍보한 바 있다.

이번 '찾아가고 싶은 봄x섬'은 꽃, 트레킹 등 봄 계절이 연상되는 테마에 따라 선정했다.

통영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으로 널리 알려져, 한산대첩 기념비, 충무사, 한산정, 제승당 등의 충무공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봄꽃 섬이다.

봄철(4월경)에 섬을 방문하면 역사적 현장을 둘러볼과 동시에 낚시, 캠



핑, 트레킹 등 다양한 여가활동도 같이 즐길 수 있다. 특히 한산일주도로를 따라가면 푸른빛 바다와 핑크빛

꽃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번에 봄섬으로 선정된 통영 한산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봄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이번 '찾아가고 싶은 봄x섬'에 선정된 경남의 섬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경남의 섬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도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통영 한산도는 따뜻한 봄기운을 맞아 만개하는 벚꽃도 아름답지만 제승당, 충무사 등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섬"이라며, "찾아가고 싶은 경남의 봄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라며, 경남의 섬 발전과 섬 여행객들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대구 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대구 서구청은 지난 3월 21일 '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2022년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인 '서구청과 친해지길 바라'를 정책에 반영한 사업으로, 청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구성된 청년 참여기구이다.

약 2주간의 공개모집을 통해 총 17명의 다양한 청년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번 발대식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네트워크 위원 위촉,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특강이 이루어졌다.

서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일자리, 환경, 사회안전망 등 지역사회의 현안을 청년들이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멘토링과 거버넌스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청년의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청송군, '청송백자'한식과 자연을 담다!

한식문화관 특별전시 종료 기념 전시품 특별할인 행사 진행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식문화관 이음 갤러리에서 청송백자 특별전시 종료 기념 전시품 특별할인 행사를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식진흥원이 한식문화관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청송백자특별전시'가 지난 5개월 동안 관람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와 많은 관심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별할인은 전시 현장(한식진흥원 1F)에서 전시되고 있는 219점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청송백자 소품들을 통하여 온라인 사전 예약 구매와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이미 많은 제품들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한국의 식재료와 사계절,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청송백자만의 절제된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우리 식재료와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각적인 '담음새'를 연출했다.

또한 관람객 누구나 직접 청송백자를 활용한 스타일링과 물체에 앉아서 청송백자를 빚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갈 수 있는 포토존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될 예정이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의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인 청송백자를 한식과 함께 전시·체험·홍보한다면 지역 문화관광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콘텐츠를 상호 활용·교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풍기인삼농협,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에 풍기홍삼 지원한다



풍기인삼농협은 대한민국 테니스 남자 국가대표 선수(남지성, 송민규, 홍성찬, 장수정, 한나래)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고 품질의 홍삼제품을 지원한다.

지난 27일 풍기인삼농협 유통센터에서 진행된 후원 협약식에는 임용규 코치와 풍기인삼농협 권현준 조합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풍기인삼농협은 △테니스 남자 국가대표팀 후원업체 명칭 사용 △선수들의 SNS활동 및 국제경기에서 제품 설치 장면 방송 송출 등을 통한 글로벌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용규 코치는 "풍기인삼농협의 이번 후원이 대한민국 테니스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며 "고향 영주의 풍기인삼 제품을 후원받게 돼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현준 조합장은 "풍기인삼농협의 최고 품질의 홍삼제품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적으로 맹활약 중인 한국 테니스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2023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김천시립도서관,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김천시립도서관(관장 신동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도서관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도서관을 통해 지역 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운영되었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원 1단' 프로그램이 2023년 도서관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업이다.

올해 시립도서관에서는 민화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전통 그림을 이해하고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예술적 지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시립도서관 개관 20주년 독서의 달 행사 등에 전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3월 28일(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중이며 시립도서관 방문 신청 또는 누리집으로 접수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삶의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그려보는 민화

- ◇ 운영기간: 2023. 4. 11.(화) ~ 11. 11.(토) 화요일 10~12시, 총 16회
- ◇ 전통 그림 이론 강연, 작품 제작 실습
- ◇ 초급: 화조도, 봉황도, 어연성동도
- ◇ 중급: 모란병, 책가도, 책가도2
- ◇ 1인 1작품 전시, 전시회 개최
- ◇ 장소: 시립도서관 문화강좌 2실
- ◇ 대상: 김천시립(성인) 25명
- ◇ 강사: 권필선 화가(고경 공중화보박물관 문화재 연구소)
- ◇ 참가비: 재료비 6만원(책자 제작 별도)
- ◇ 신청: 3. 28.(화) 9시부터 홈페이지 또는 방문
- ◇ 문의: (054) 421-2854

나 운영팀 ☎054-421-2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도내 중소기업에 '온라인마케팅 종합선물세트' 쏜다

온라인 전용 신규 상품개발 및 판매촉진 등 총 100여개사 지원

경북도는 국내 소비·유통 환경의 급변으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개발 및 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 전용 신규 상품개발' 참여 기업을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품개발 사업은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2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16개 기업이 신청해 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온라인시장 초기 진입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파격적으로 100여개사를 선정해 온라인 판매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상품기획부터

시장조사, 패키지 디자인 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특가구좌, 라이브 커머스 등) 등 온라인마케팅의 전 프로세스를 모두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온라인유통 채널인 11번가, 우체국쇼핑, 오아시스, 위메프, 티몬에서 상품기획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선정된 기업의 컨설팅을 시작으로 상품개발, 판매촉진까지 전 과정을 돕게 된다.

모집대상은 경북도에 소재하고, B2C 제품을 직접 제조·생산하거나, 위탁생산(OEM)이 가능한 중소기업이며, 자격요건은 2021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으로 이 가운데 유통전문 벤더사는 제외한다.

사업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지원사업-안내페이지에 게시되어 있



는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 전용 신규상품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구비한 후 신청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관 경북도 기업지원과장은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온라인 판

로지원 사업을 발판삼아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유통망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품개선과 판매전략 수립 등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로 매출 성장 극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 내달 1일 재개장

울창한 숲속에서 자연경관과 모험 즐기는 색다른 체험

영덕군 팔각산 인근의 계곡에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모험을 즐기는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가 겨울철 정기휴장 동안 안전점검과 시설보수를 마치고 다음 달 1일을 재개장한다.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는 울창한 숲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와이어, 목재 구조물, 로프 등으로 연결해 공중에서 이동하는 자연친화적 레포츠로, 영유아를 제외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은 1시간 이용 기준 어른(만 19세 이상)은 4,000원, 청소년(만 13세~만 18세)은 3,000원, 어린이(만 12세 이하)는 2,000원이며, 이외에 판매 거주 주민은 30%,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은 50%가 감면된다.

다만, 이용객이 과도하게 몰려 안전상의 문제나 편의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당 이용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설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5타임을 시간대별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하거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국무총리 만나 APEC 경주 유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한 자리서 주낙영 시장 "지방시대 균형발전 극대화 위해 APEC 정상회의는 중소도시에서 열려야"

경주시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 시장은 한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의 이철우 경북지사도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수도권이나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APEC의 관례"라며,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주가 정상회의의 최적지임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회의만 한다거나 한 도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경제발전상을 아울러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국제 상성과 국가자긍심을 고취를 위해서라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



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경주를 포함 부산, 인천, 제주 등이다.

이 가운데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지만 APEC 교육 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

6회 세계인문학 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 역 등에서 1~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장점과 각국 정상, 수행원, 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 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는 2025년 증축이 끝난다.

주낙영 시장은 "현재 유치 의사를 피력한 도시 가운데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라며, "국제회의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이 집적된 경주에서 처음으로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대한민국의 품격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어 APEC비전과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지역 숙원과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예고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대내외 유치 세일즈와 범시민적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제4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개최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가 27일 13시 경북궁 사정전에서 개막식을 열고 14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퇴계귀향길 재현행사는 450여 년 전 퇴계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수개월에 걸친 사직상소 끝에 귀향을 허락받아 경북궁에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왔던 여정을 재현단과 일반인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행사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행사는 경북궁에서 안동 도산서원에 이르는 700리길 구간 곳곳에 남아 있는 선생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귀향 당시 마음을 되새기며 올바른 선비정신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행사를 축소 진행해 왔으나 올해 개막식에는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이경



훈 문화재청차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내빈들뿐 아니라 관련 학자, 재현단, 일반인 참가자 등 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또한, 충주관아공원, 청풍안학루, 영주시 이산서원 등에서는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여 퇴계선생이 귀향하던

당시를 회상하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규모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퇴계선생이 임금의 만류에도 물러남의 길을 택한 것은 선생이 평소 염원했던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위해 사담다운 사람, 인격적 지도자

인 선비를 길러내기 위함이었다.

13박 14일 동안 퇴계선생이 걸었던 길을 따라 서울에서 남양주, 양평, 여주, 충주, 제천, 단양, 영주, 안동 도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퇴계선생의 정신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퇴계선생의 귀향길 여정이 선생의 삶과 정신에서 가르침을 깨치는 구도의 길이라는 점 외에도 자연과 인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걷기 문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500여 년 전 선생이 남긴 물려남의 정신과 후학 양성의 뜻을 되새기며 현 사회가 직면한 지방시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영양우체국 명예 산불감시원 업무협약 체결

- 집배원 명예감시원 임명, 푸른 영양을 지키는 작은 관심! 산불조심!
- 오도창 영양군수, "산불예방활동 강화 군민 생명·재산 보호"



영양군은 산불로부터 신속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3월 28일(화) 영양군청에서 영양우체국과 명예 산불감시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면적의 8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진화가 어려워 산림감시원 및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주요 등산로와 도로변에 배치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산골짜기 오지 마을까지의 산불예방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농·산촌 구석구석 매일 누비고 다니는 집배원들을 명예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용 차량 등에 산불조심 깃발을 설치하고 홍보물 배부 등 산불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박현국 봉화군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격려 방문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27일 산불 대응센터를 방문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산불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진화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불예방 활동강화와 초기진화에 역점을 두는 등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은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해 48명의 전문진화인력을 선발하고 용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산불의 조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안전한 진화작업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며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진화 작업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 안심뉴타운 일반상업용지, 준주거시설용지 공급

대구도시개발공사는 3월 27일부터 안심뉴타운 내 일반상업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 8필지를(대구광역시 동구 울암동 일원) 일반 수요자 대상 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대상 토지는 △일반상업용지 7필지, △준주거시설용지 1필지로 총 4,516㎡이다. 이밖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 7필지(필지당 평균 면적 570㎡)의 용적률은 700% 이하이고,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의 필지까지 합병이 가능하다.

일반상업용지는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준주거시설용지의 경우 이밖에 공급하는 용지는 1필지(509㎡), 용적률은 400% 이하이며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준주거시설용지는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안심뉴타운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개발부지 내 오염도 정화작업을 통해 친환경 부지를 조성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서 대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 동호·울하역, 혁신도시 등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종합시장, 대형마트, 안심창조밸리 등 문화·생활시설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61.6km의 4차 순환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대구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율하역, 신기역, 반야월역 등 도시철도 1호선과 가까워 유동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안심뉴타운은 혁신도시, 율하 등 대

박류석/대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발빠른 행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APEC 개최 최적의 도시는 '경주'임을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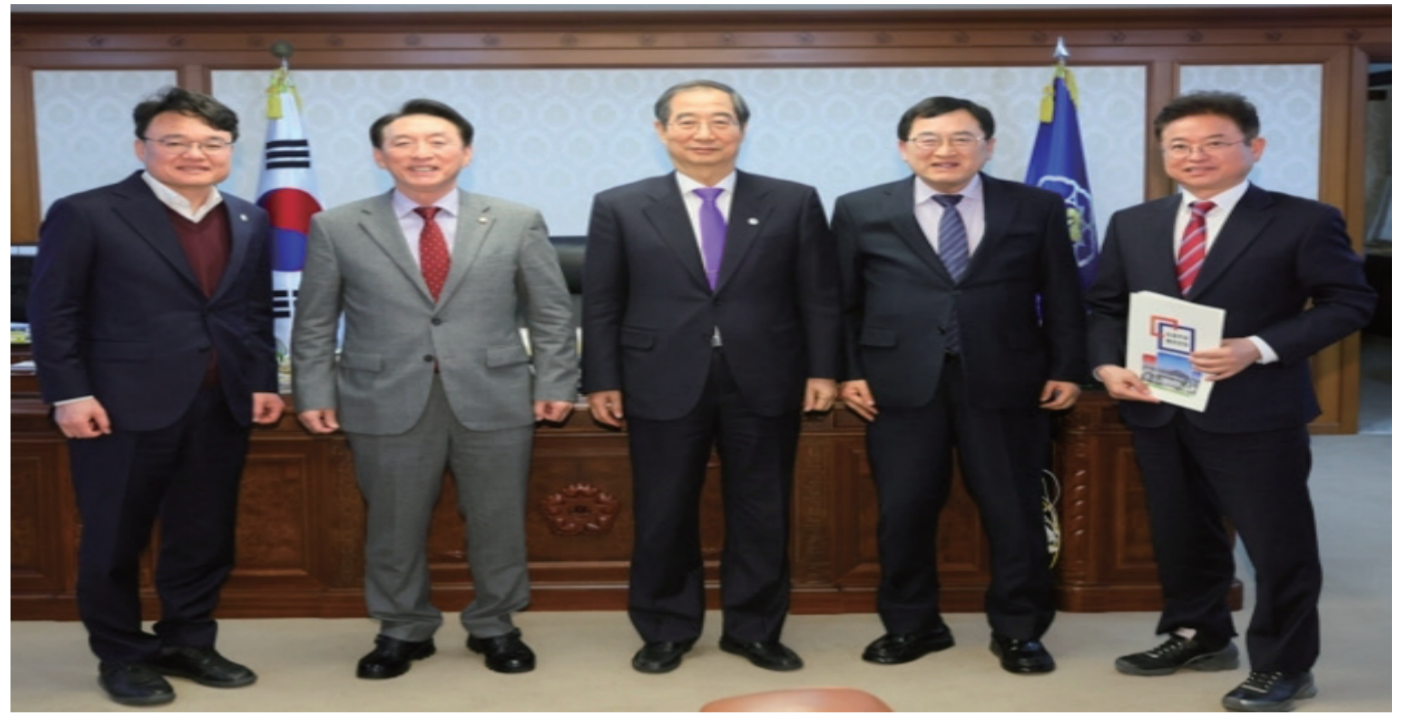
이철우 지사는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최적의 도시임을 자부하며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경주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경쟁도시보다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경주는 현재 유치 경쟁도시 중 유일한 중소 기초자치단체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균형발전 실현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안정맞춤이며, APEC이 채택한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최적의 개최지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2012), 제7차 세계물포럼(2015),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2020) 등 최근 10년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

보문단지 내 반경 1.5km 이내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이 있고, 여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있지 않고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각국 정상들의 경호와 안전에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

또 준비된 국제회의(마이스 중심) 도시로 APEC 21개 회원국의 정상·수행원·기자단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가 2025년 증축 완



로 예정으로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경주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대표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원전세일즈 최적의 도시로 산업발전 중심지인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이 인접해 있어 개발국 정상과 각국 영부인을 위한 일정 추진이 용이하고, 1~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김해공항, 대구공항, KTX역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간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중 소규모 도시인 멕시코(로스카보스, 2002), 러시아(블라디보스톡, 2012), 베트남(다낭, 2017)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경주 유치의 당위성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1개국 정상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을 지방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도 지방의 다양한 노

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경북도가 반드시 '2025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건의와 더불어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석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포항 이차전지 양극소재 특화단지 지정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윤근수/기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기원 2023년 독도 현장 부서장 회의 개최

울릉군은 3월 27일 독도(동도 물양장)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기 위한 2023년 독도 현장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서장 및 공무원 70여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남한권 군수는 "우리 민족의 섬 독도 현장에서 개최된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정말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감을 밝히고 힘차게 회의를 시작했다.

이러진 회의에서 울릉군민의 숙원 사항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독도에서 근무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한편, 정부·국회 차원의 후호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 마련과 함께 언론

홍보, 입법청원, 대정부 건의문 작성, 서명운동 등의 범국민 캠페인 활동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후, 독도경비대를 방문하여 독도 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대원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독도 관광 시즌이 시작될 만큼 현지 관리 업무에 힘써 달라 당부했다. 이어 서도 물골, 독도 안전지원센터 후보지, 독도 주민 숙소 등 시설물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2023년 독도 현장 간부회의를 마무리 하며 사동항으로 복귀했다.

독도를 처음 방문한 한 공무원은 "영상으로만 보던 독도에 직접 와서 보니 독도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이런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앞으로의 공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 이른 시간부터 나와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했는데 피곤함이 모두 사라졌다"라며 웃음을 띠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현장 간부회의가 "기존 서류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직

접 찾아가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안에 대하여 현장간부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현종·조강제/기자

경북교육청, 일본 역사 왜곡 규탄 성명서 발표

일본 정부는 즉각 역사 교과서 왜곡을 반성하라

경북교육청은 28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1년 독도교육 온라인 플랫폼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해 현재 누적 접속자 수 72만 명에 이르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교실 영문 콘텐츠를 공개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 독도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자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독도교육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최대 300만 원 지원

전남 구례군이 오는 4월 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점포 시설개선비 또는 기계·장비 구입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공급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3. 3. 21.) 기준 구례군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국제 및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장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국제 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대상 사업장은 70개소 내외로 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

비해 구례군청 경제활력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3년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게시글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김성 장흥군수,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 국가보훈처 방문

보훈·보단체, 장흥군 사회단체 등 지지 성명 잇따라



▲ 김성 장흥군수,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 국가보훈처 방문

김성 장흥군수가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를 위해 27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했다.

이날 김 군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국립 전남호국원의 장흥 유치 적합성을 설명하고 보훈단체 성명서를 전달했다.

장흥군은 지난 2월 전남호국원 조성 유치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2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후 지난 3월 24일에는 전라남도에 국립 전남호국원 장흥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흥읍, 안양면 이장단, 장흥군 기관·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4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보훈·안보단체와 장흥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지지성명 발표로 호국원 유치를 힘써주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없는 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전남호국원 장흥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영광의 지금, 여기, 우리를 아카이빙(기록화) 하다!



영광군은 지난 3월 24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2기 영광군민 기록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한 '영광군민 기록활동가 양성교육'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현상에 맞서 영광지역의 현재와 기억을 기록하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써, 이날 수료식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16명이 '영광기록사'의 자격을 얻게 됐다.

4주 동안의 교육을 수료한 '제2기 영광기록사'는 앞으로 영광지역의 '지금, 여기,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

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승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중만 군수는 수료증을 전달하며, 직접 '영광기록사'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또한, 수료자들에게 "지역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기억이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면, 지역의 역사가 사라진다"라고 아카이빙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범국가적 의제인 시대에 '아카이빙'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스스로 써 내려가는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며 수료자들을 격려했다.

이동순/기자

목포시,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으로 큰목포 건설박차

남향, 국내 최초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목포시가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등 큰 목포 건설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서 국내 최초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과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레저선박은 물론, 세계 최대규모 전기추진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와 친환경선박 연구거점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연구개발,실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다.

이번달 초 전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공동으로 신규사업을 발굴·기획해 해양수산부 담당부서를 방문하고 사업설명 및 국고 건의활동을 진행했다. 향후 신규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수소, 배터리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의 공급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기술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상용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포 남향 재개발부지 내 교육연구거점의 효과적인 활용과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준비중에 있으며 목포시의 미래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친환경선박 산업을 고도화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향을 이른바 '바다의 실

리코벨리'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선박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20년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식'으로부터 본격화됐다.

미래 선박해양산업의 성패를 결정할 선박 온실가스 규제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해 세계수준의 친환경선박 산업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목포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상호 협력기로 하면서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0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준비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4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여 국비 1,032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585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전기추진 차도선이 개발됐다. 전기추진 차도선은 세계 최초로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이 적용된 선박으로, 약 1년여간의 시험운항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본격적으로 항로에 투입된다.

또한, 친환경선박의 혼합연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육·해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해상테스트베드로 사용될 선박은 지역 기업인 (주)한구메이드에서 건조되며, 지난해 9월 선박 건조를 알리는 강제절단식을 진행했다.

해상테스트베드는 친환경 연료인



LNG에 암모니아나 수소를 혼합한 친환경 연료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연료 전지, 배터리 등 다양한 추진시스템의 실증을 함으로써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산업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수소연료전지 기반에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소형 여객선을 개발을 통해 기존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30MW급)의 전기추진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선박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 및 부품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공유하는 해상풍력, 합정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비 약 390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의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SS 충전시험동 ▲판계유지보수동 ▲전력시험동 ▲연구동 ▲국제협력동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부터 연구시설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광주광역시·GIST·삼성전자, 반도체 인재양성 상생 1호 반도체특화단지 경쟁력 높인다

삼성전자·광주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 계약학과 신설 협약

광주시에 삼성전자·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취업을 보장하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톨관에서 강기정 시장, 이형석·양향자 국회의원, 송재혁·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삼성전자 반도체공학(계약학과)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광주시, 기업, 대학은 신설 학위과정을 협의해 개설·운영한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은 2024년 1학기부터 반도체공학과 계약학과를 신설해 매년 30명을 선발하며, 학생들은 공정 중심의 교과과정을 배우고 졸업 후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된다.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균형발전과 창의적 인재양성

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광주과학기술원의 우수한 교육·연구 자원과 삼성전자의 세계적 기술력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공정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해, 광주를 거점으로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간 계약학과가 생길 때마다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계약학과가 생겼고, 지역 인재 성장의 여망이 현실화 됐다"며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고,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 등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하는 일



▲ 김병수/기자

에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에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산업부에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심사·평가에도 철저히 대응하는 등 시·도의 역량을 한데 모아 반도체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병수/기자

'봄 정취 만끽' 나주시, 4월 8일,9일 '나주 배꽃 대향연' 개최

'하얗게 핀 배꽃에 달은 환히 비추고 은하수는 돌아서 자정을 알리는 때에...' 고려 후기 문신인 이조년의 평시조 '이화에 월백하고'의 첫 구절이다. 하얗게 핀 배꽃에 달이 비치는 봄밤의 낭만을 시작으로 노래한 이 작품은 고려시조 가운데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시조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배꽃 아래에서 나주시가 4월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소규모 축제 행사를 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4월 8일,9일 이틀간 전국 유일의 배 박물관인 나주배박물관(금천면 소재) 일원에서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나주 배꽃 길에서, 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역 대표 특산품인 나주배 전시·홍보와 다채로운 체험·이벤트, 공연 등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시는 행사 기간 배꽃과 더불어 영산강 둔치 공원 유채꽃밭, 한수제 벚꽃 거

리에서 관광객들이 나주의 봄꽃 대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봄꽃 명소 3곳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에서는 4월 초 배꽃이 만개할 무렵 한 해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인 '배신제'를 봉행한다.

나주 배꽃 대향연은 8일 오전 9시 30분 이 제례 행사로 막을 연다. 배신제에는 배농가와 시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해 한 해 무사 안녕과 풍성한 결실을 기원할 예정이다.

나주배꽃과 관련된 행사는 지난 2010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었다. 행사 첫 날에는 13년 만에 나주 배꽃 축제 부활을 축하하는 배꽃 어린이 재동잔치, 시립합창단·어린이집 축하공연이 열린다.

배 껍질 길게 깎기, 배 예쁜 모양으로 깎기, 나주배꽃 4형시 짓기(둘째 날) 등 관광객이 참여해 경품을 받아갈 수 있는 이색 경연대 배움을 섞어

만든 인절미를 직접 메쳐보고 맛보는 배떡 나눔 체험도 진행된다.

꽃 물결이 출렁이는 배꽃·유채꽃밭 배경으로 한 '전국 사진 촬영대회'(첫 날)에 이어 둘째 날에는 '즉석 배꽃 사진(핸드폰) 촬영 콘테스트'를 열어 심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장 주 무대 일원에서는 배꽃 사진·배 품종·나주관광 기념품·나주밥상 전시와 더불어 배 슬러시·배 깎두기·배술 등 배로 만든 음식, 다양한 가공식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과수원에는 배꽃 감상 스태프, 배꽃 길 걷기 코스를 조성, 바라만 봐도 힐링 되는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맞아 개최되는 이번 나주배꽃 대향연은 나주배 전통과 역사성, 우수성을 알리는 기록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운 시장은 이어 "배꽃과 더불어 유채꽃밭, 벚꽃 등 나주의 계절 관광 명소를 연계해 나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봄꽃 축제로 육성해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은 나주시가 주관·최최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나주배원예농협에서 후원한다.

김영만/기자

문화재청-전북도-진안군-완주군 '임진왜란 응치 전적' 사적 지정 기념행사 개최

영화한산배우 이준혁 명예지킴이 위촉, 전문가 강연 등 / 3.27. 전라감영지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과 함께 27일 오후 3시 전라감영지(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임진왜란 응치 전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임진왜란 응치 전적'은 임진왜란 초기(1592년 7월)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 및 의병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한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응치'는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 고갯길의 지명으로, 응치 일대의 옛길은 전주와 전라도 동부지방인 진안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됐던 곳이다. 응치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격하여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던 왜군

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임진왜란 응치 전적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응치 전투를 통해 지켜낸 전라감영지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행사는 국악예술단 노리광대의 사물놀이 및 북 공연을 시작으로 이재운 교수(전주대학교,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위원장)의 강연, 사적 지정 경과와 보존·활용방안 보고(전라북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및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영화 '한산'에서 응치전투의 의병장 황박 장군 역할을 했던 배우 이준혁 씨를 명예지킴이로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진왜란 극복의 계기를 마련한 임진왜란 응치 전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로 지정됐음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문화유산들을 더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안군은 전라북도, 완주군

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온전히 보호해 나가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정읍시,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 가맹점 신청하세요!

정읍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정읍형 공공 배달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를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 (☎)위메프오(대표 하재욱)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배달앱 사업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위메프오'는 가맹점 중개수수료율이 2%로 6~15%대에 이르는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고, 가입비 없이 입점할 수 있어 가맹점들의 경영 부담에 도움을 준다.

특히,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할 때는 카드수수료와 달리 결제(PG)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입 소비자에게는 정읍사랑상품권을 결제 수단과 연계해 10%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의 1%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첫 주문 할인과 특영요일 할인 쿠폰, 배달비 할인 등 각종 이벤트와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오'는 오는 5월 1일 서비스 오픈 예정이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주들은 인터넷 '위메프오 파트너스'를 검색해 입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공 배달앱 사업이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착한 소비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읍형 공공 배달앱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정읍공공배달앱 위메프오

가맹점 사전 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인신공증
신청주소: 인터넷 > 위메프오 파트너스 > 입점신청 (자유모의)
https://partner.wemepo.co.kr/apply/apply
문의전화: 1833-4877

위메프오 가입 소비자 혜택

- 정읍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 결제 금액의 1% 페이백
- 회원분류 지급 배달료, 첫주문 등
- 전문의자, 편의점 배달 가능

정읍시

전주시, '민주주의의 시작' 학생 자치회 활성화 방안 모색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27일 '제11차 전주교육실천공유회(정담회)' 개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안성균)는 27일 오후 6시, 센터 4층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전주시 학생 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전주교육실천공유회를 개최했다.

전주교육실천공유회는 행정(전주시)과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등 지역 교육주체들이 함께 지역의 교육의제를 논의하고 교육 정책으로 구현해 가는 장으로, 센터 개소 이후 11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전주학생자치연합회 '아르떼', 시 청년정책과, 교육

지원청·학교, 지역 청소년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전주 학생 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학생자치연합회는 각 학교별 대표들의 학생자치 운영현황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질문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답변의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학생 자치회를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자치회 참여도 제고 및 인식 개선 방안, 교사와 학생 간의 역할 등을 두고 열띤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김승일/기자

남원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 91억원 편성 확정

2023년 본예산 1조 264억원 대비 827억원 증가한 1조 1천 91억원

남원시는 82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당초예산 1조 264억원에서 827억원이 증가한 총 1조 1천 9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 498억원으로 762억원(7.8%) 늘고, 특별회계 593억원으로 65억원(12.3%)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천 30억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장 공약사업에 관한 예산 203억원이 대폭 삭감되어 최종 827억원으로 확정됐다.

삭감사업으로는 드론·항공산업예산 76억원, 남원 FAI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개최 준비와 관련된 드론 레저 스포츠스타디움 건립비

100억원과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14억 7천만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포상금 예산 1.2억원, 고령화 추세를 대체하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푸드 추진예산 1.5억원 등이다.

삭감된 예산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이끌 드론·항공과 관련 사업과 미래관광 예술 도시로 발돋움할 예산,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예산으로 민선 8기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반영 예산은 민선8기 사업으로 ▲미래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9억원 ▲남원읍성 복원 복원 및 발굴조사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20억원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5억원 ▲인재학당 건립 59억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용 사업 14억원 ▲천연물 화장품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이번 공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 자치회와 청소년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은 "이번 공유회는 교육 활동의 수요자이자 한사람의 민주 시민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효과적인 학생 자치회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 교육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맑은 군산 추진단, 청렴도 향상 위해 위로부터의 개혁 요구

'맑은 군산 추진단' 2023년 제2차 회의 개최

'맑은 군산 추진단'이 2023년 제2차 회의를 갖고 군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맑은 군산 추진단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장이 나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혁 의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천명하는 등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여 소극행정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홍보할

것, 시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군산시 반부패 활동을 쉽게 찾아보고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 개최된 2023년 1차 맑은 군산 추진단 회의 제안으로 시행했던 군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시책 공모전'에서 1차 실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안건에 대한 2차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3개의 청렴시책을 최종 선정했다.

맑은군산추진단 정동원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청렴도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위직의 역할과 취약분야 개선 노력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종 실시계획이 발표되는 5월까지 청렴 실천 활동과 더불어 시책 발굴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민간위탁기관 투명 살림살이"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에 참석한 민간위탁기관, 보조사업자, 출연기관 등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거듭 당부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완주군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완주군 회계학교'를 운영했다.

회계학교는 공무원 및 민간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 각종 사회단체 회계담당자 등 220명이 참여했으며, 회계 기본실무와 지방계약법 등의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24일 교육에는 민간위탁기관 등 민간기관 회계담당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주요감사 사례 및 주의사항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

템, 집행 실무 등을 실제 사례를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임희정씨(완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바뀌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다 보조금 관리기준도 까다로워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교육으로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간위탁비와 보조사사업이 전체 예산의 11.7%를 차지하면서 기준이 되는 법과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며 "완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광수/기자

김제시,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모두가 하나되는 '아리랑! 아리리오'추진

김제시는 3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역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인 '아리랑! 아리리오' 사업을 김제시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여러나라 문화체험과 놀이로 즐겁게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명인 '아리랑! 아리리오'에서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얼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소수 민족에서는 '맛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리랑! 아리리오'에서는 다문화 음식·놀이·의상체험과 더불어 미술공연, 가족사진 인화 서비스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2일까지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어 ▲김제시가족

센터(신청·참여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4월8일 공덕면행정복지센터, ▲4월29일 봉지면행정복지센터, ▲5월13일 봉남면행정복지센터, ▲5월27일 금산면행정복지센터, ▲6월10일 지평선어울림센터, ▲6월24일 백구면행정복지센터, ▲7월8일 진봉면행정복지센터, ▲7월22일 지평선어울림센터에서 해당일 10시부터 13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가족은 "외국인 주민과 함께 다문화 의상도 입어 보고, 다문화 음식과 놀이를 함께 체험하고 즐기니 서로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등 지역사회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을 위해 많은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김광수/기자

익산시 공공건물 안전성 강화...재해복구공제 가입

공공건물·시설물에서 각종 재해, 인적 피해 발생할 경우 보장

익산시는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는 공유재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매년 늘어나는 공유시설물의 공제등록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영조물배상과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중이며 이를 통

해 각종 재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천796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선진행정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수/기자

경남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기획단속 돌입

27일부터 5월 12일까지...식품유통담당부서, 시군, 도 교육청 합동 점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3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식품유통담당부서와 도 교육청, 해당 시군 등이 참여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도내 750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식재료 가격상승 등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반해, 급식 식재료의 공급단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소비(유통)기한 변조 및 원산지 둔갑 등 원가 절감을 위한 불량 식재료 유통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도 특사경은 단속기간을 나누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 제기되는 저품질 식재료 납품 등 위장위탁과 불성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업체 등록지에서의 작업 여



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도 식품유통담당부서와 합동으로 ▲무신고 및 신고영역 외 영업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저품질 식재료 공급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는 도내 수많은 학생과 도민이 식사하는 시설로, 불량 식재료 유통 등에 따른 위해 발생 시에는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봉화군,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서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단속...부정유통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수사의뢰

봉화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봉화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수취 및 불법전환,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찰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조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며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이 부정유통 사례 근절과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2023년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은 중고차 미끼매물 등 허위광고 및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부터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산서구 내의 자동차 매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반을 꾸려 중고차 허위매물을 중점으로 미끼매물, 허위광고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법령 미숙지와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법령 위반 시 재발 방지와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도나 경고 없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즉각 경찰서로 고발할 예정이다.

중고차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자동차365'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차량 유무, 정보 진위

여부, 중고차 시세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차량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중고차 허위매물은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반대된다"며 "사기 피해 예방과 더불어 고질적인 불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인천 중구, 올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약 8,000만 원 예산 투입해 중구노인복지회관 앞 횡단보도에 무인단속장비 2개 설치

인천광역시 중구는 주행 차량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신호·과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중구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원도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중심으로 21개의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중구노인복지회관 앞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2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5월까지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약

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며 "이번 노인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대구 동구, 2023년 상반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기간 운영

대구 동구청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무단투기 집중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관내 무단투기 취약 지역 5개동을 선정,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집중 홍보 및 단속기간을 정해 무단투기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관리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다.

신천4동을 시작으로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안심1동 순서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 및 상가 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자원과와 관할 동,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홍보활동 등을 한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이 담긴 안내문 배부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사례 사진 전시 등이 있다.

또, 홍보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홍보 기간에 대한 현수막을 적재적소에 부착하고, 지역 상인회, 외식업중앙협회 등을 통해 상업용 쓰레기 배출이 잦은 상점에도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집중홍보 활동을 마친 뒤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에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불법소각 행위 등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통해 청결한 도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도전합니다!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장흥군 Jangheung County

9부 [정흥 대표 볼거리·먹거리·살거리]

9부 정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

9부 꼭 먹어봐야 할 정흥 별미

9부 자연이 선사한 특별한 선물

NH 100년 농업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업

유형 혁신

디지털 혁신

조직문화 혁신

‘2023 베리베리 빵빵데이’ 빵의 도시 천안 홍보 효과 특독!

(사)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2023 베리베리 빵빵데이’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베리베리 빵빵데이는 ‘빵의 도시 천안’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해서 확산하고, 지역 내 제과업체와 제철 농산물 딸기의 최대 수확 철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5일~26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55개 동네빵집이 각 축제의 장이 돼 딸기를 사용해 만든 빵 판매 및 할인행사, 천안산 딸기잼 증정 등을 운영하고, 빵지순례, 체험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여한 시민과 방문객들을 만족시켰다.

참여 제과업체는 신선하고 당도 높은 천안산 딸기로 만든 빵을 맛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딸기 케이크와 크루아상 등 다양한 빵과 음료류 등 다양각색의 딸기 관련 제품이 불난 듯 팔리며 인기를 끌었다.

딸기 양금이 들어간 호두과자 또한 색다른 맛으로 큰 호응을 받았고,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 회원들이 직접 만든 홍보용 수제 딸기잼 증정 및 딸기를 활용한 빵 판매로 농가에 보편적인 딸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와 ‘빵의 도시 천안’의 홍보 효과도 특독히 높였다.

천안시 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기여하고자 천안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안 밀, 팥, 호두, 딸기 등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5개의 제과업체(천안앳날호두과자, 두쥬루과자

점, 파스텔베이커리, 빵굽는 아저씨, 크러쉬는 몰랑몰랑)에 천안 로컬푸드 사용 인증패를 전달해 지역과 상생하는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규모를 대폭 확대 운영한 빵지순례단(200팀/600명)은 행사기간 2일 동안 빵집 2개소와 새로이 선정된 천안 8경을 방문하고 개인 SNS에 후기를 올려 빵집뿐만 아니라 천안의 관광자원까지 전국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지난 25일 시청에서 진행된 호두과자 굽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바로 구운 호두과자 맛이 정말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 호두과자를 직접 구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유익했다”고 말했다.

박창호 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장은 “이번 베리베리 빵빵데이가 지역 농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 행사를 위해 애써준 회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10월 빵빵데이에는 시민분들께 더 좋은 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빵지순례를 함께하고 “참여해주신 전국 방문객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행사 기간 맛있는 천안 빵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가 되시길 바란다”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빵빵데이 축제에는 참여업체 확대와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등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옥천군, ‘다같이 돌아! 구읍 한바퀴’

옥천군은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구읍 명소를 활용한 ‘다같이 돌아! 구읍한바퀴’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구읍의 명소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옥영수 생가, 옥천향교, 교동저수지, 지용문학공원, 옥주사마소, 정지용 생가를 투어하고 명소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 개인 SNS에 여행 수기를 올리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여행지마다 2장 이상 올리고 100자 정도의 소감을 쓰면 된다. 영상은 총 길이 60초 이상으로 7컷이 모두 나오도록 편집해 올리면 된다.

미션을 수행한 모든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며 매달 3명을 추첨해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숙박권을 증정한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며 구읍을 둘러볼 수도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투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0시 10분, 14시 10분 하루 두 차례 운영하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내 관광안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다같이 돌아! 구읍 한바퀴’를 찾은 관광객은 1,000여 명 정도다. 옥천군은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구읍을 찾아올 거라 예상한다.

구읍 투어 담당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즐비한 구읍은 해마다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지용제가 열리는 곳으로 맛집과 카페가 많아 전통과 현대 문명이 어우러진 곳”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구읍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껴 계절마다 찾는 관광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같이 돌아! 구읍 한바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옥천 관광안내소 또는 옥천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희기자

조길형 충주시장, 봄맞이 마음가짐 대청소 나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본격적인 봄의 도래를 앞두고 심신을 새롭게 하는 대청소에 나섰다.

조 시장은 27일 주재한 현안업무회의에서 “4월은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이에 맞춰 많은 축제와 행사가 예고된 시기”라며 “3월이 끝나기 전에 다수 방문·이용이 예상되는 장소의 현장 확인 및 개선, 정리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충주시와 함께 우리 자신의 봄맞이 대청소도 필요하다”며 “본인의 임무·일하는 장소·마음의 자세 등 스스로의 면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특히, “많이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방치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라며 “무엇이든 요점 위주로 정리해서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조길형 시장은 “말라 죽은 화초나 바늘이 멈춘 시계처럼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선 안 된다”라며 “중요도와 순서에 따라 업무를 정리하고 끝난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해서 늘 예민하게 깨어있는 환경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가산단 조속 추진”

실국원장회의서 강조…“전기요금 차등제 법안 통과 위해서도 집중”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법안 최종 통과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거론하며 “전기요금 차등제는 석탄화력발전 최대 집적지인 충남의 국회 토론회 개최와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에 적용, 기업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2일 당진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5개 시군에서 개최하는 ‘시군 탄소중립 실천 확산 대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미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강화하며,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 중에서 충남이 가장 넓다”라며 “천안은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홍성은 미래자동차와 2차전지, 인공지능, 수소 등 미래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

이며, 예산은 도 주도로 농생명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해 농업 혁신

성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천안, 홍성, 예산군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국가산단 및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성과를 내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도민 여러분께 잘 전달하는 것”이라며 “주요 성과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 실국원장이 언론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밖에 △400억~5000억 원 규모 국비 사업 추가 발굴 △중소기업 수출 지원책 강화 △청소년 시설 활용성 제고 △외국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관리 시스템 마련 △농촌에 청년들이 유입·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팜 재정립 △시군별 대규모 종합 저온저장창고 신설 추진 등을 주문했다.

최정근기자

춘천시티투어 노선 개편 운행…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등 추가

4월부터는 화요일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춘천시티투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편된 춘천시티투어 하절기 노선을 운영한다.

개편된 노선에는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및 전통시장이 추가됐다. 또 동절기 운행을 하지 않았던 제이드가든, 구곡폭포, 킱가누 등 야외관광지도 노선에 다시 포함됐다.(요일별 운행 노선 별도 첨부)

반려동물 동반 코스는 화요일로, 탑승 조건은 예방접종이 완료된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탑승 시에는 강이지 가방과 산책줄, 기저귀, 배변봉투 등은 필수로 챙겨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항에 근거한 맹견종과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표기되지 않았지만, 위압감을 주거나 공격 성향이 강한 품종은 탑승할 수 없다.

시티투어 탑승료는 성인 6,000원, 어린이, 경로(만 65세 이상)는 4,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티투어 노선이 개편된 만큼 많은 분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아산시, '온양6동 도시재생 주민포럼' 개최

아산시가 온양6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오는 30일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양6동 도시재생 주민포럼’을 개최한다.

‘온양6동 도시재생 주민포럼’은 3.11 만세운동으로 꿈꾸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퍼포먼스 △초청 강연 △종합토론토로 구성 진행될 예정이다.

허춘욱 온양6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장은 “주민포럼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양6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국비 1억 5천, 지방비 1억 5천)을 투입해 △온양6동의 역사 문화 보물찾기 프로그램 △안전거리 조성 및 경관개선 △온주맛고을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원호기자

양양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4월 5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을 위해 2억 6,7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행 경유차 35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15대)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20대)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가 해당되며(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종류·무게 및 엔진종류에 따라 엔진교체비가 9,628천 원부터 19,295천 원까지 지원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시 100만 원이 정책 지원되며,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 경유차 소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48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31대를 지원했다.

최만식기자

화천군, 접경지 화천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재개

화천군, 7~8월 여름방학 기간 중 9일 간 해외 배낭연수 실시

접경지역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

군은 오는 4월1일 오후 2시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3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추진계획 및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천군의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는 지역 학생들이 연수계획 사전계획 수립과 발표까지 직접 마련해 자발적으로 실시된다.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최고의 기회다.

연수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기간 중 9일에 걸쳐 진행된다. 연수지 제한은 없으며, 인솔자와 1팀 당 1개 국가, 2개 도시 방문이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까지며, 선발 인원은 총 11명, 61명이다.

학생과 부모가 모두 화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거나, 학생과 부모 중 1명 또는 실질 부양자가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실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5~2019년 해외 배낭연수



생, 2023년 중학생·특성학교 뉴질랜드 여학연수생, 2019~2023년 군비로 지원하는 각종 해외 연수 참가자 및 예정자(저소득가구 해외연수, 일부 자부담 지원 해외연수 제외)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해외 배낭연수 참가 희망학생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군청 교육복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 선발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토론대회(2팀, 16명), 고등학교 1~2학년은 연수계획 심사(5팀, 25명)와 토론대회(4팀, 24명)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학생 40명, 고교생 179명 등 모두 219명의 해외 배낭연수를 지원했다.

방문 국가는 일본 등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등 아메리카 대륙, 독일, 영국, 체코, 벨기에 등 유럽국가까지 총 31개국에 이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의 아이들이 넓은 세계에서 외국어 사용 능력을 키우고 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세나기자

경북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에 팔걸어...



제품디자인 최대 3000만원, 브랜드개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경북도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대구 경북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를 활용해 제품,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인지도 상승과 매출 향상을 돕고자 한다. 디자인의 경우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로 제품 콘셉트, 외형디자인 등의 주기적 개선을 위해 분야별로 지속적인 디자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제품디자인은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BI개발과 브랜드 적용 패키지 등 디자인을 도와주는 브랜드 개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개발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총 10개 기업(제품디자인 4, 브랜드디자인 6)을 모집하며 참

여를 희망하는 경북 중소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은 경북·대구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개 과정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디자인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과정은 선정평가(상품성, 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선발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6개 세부사업에 284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경쟁률은 평균 3.3:1, 기업 만족도 95%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요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체 수혜기업의 매출은 993억원 증가(2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해외시장에서 통할 중소기업 키운다...총 18개사 선정

서울시가 게임산업의 허리축인 '중소 게임개발사' 키우기에 나선다. 게임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네이비클라우드, 스마일게이트 등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에 통할 만한 게임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 제작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3 서울시 우수 게임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작(8개), 마케팅(10개) 등 총 18개의 기업을 선발해 1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4억 7천만 원의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 콘텐츠 마케팅 집행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해당 공모는 2017년부터 진행 중이며, 게임 산업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우수 게임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게임 분야 지원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합류한 메가존클라우드, 애드엑스플러스를 포함해 네이비클라우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인, 액솔라, 윈스토어, 텀블벅 등 게임산업 분야별 7개의 파트너사와 같이 협력하여 우수 게임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게임업계에서 '해외진출 응용문'으로 통한다. 2022년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기업 모두가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신도림 with Naver Webtoon'의 경우 150만 이상 다운로드되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맞는 대·중견기업과의 파트너십 방향도 결정된다. 창업 7년 미만의 서울소재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진단키트(Kit)를 활용한 1차 진단 및 2차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8편을 선정한다. 게임 콘텐츠 진단은 신청작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진단 결과에 대해 전문가 피드백이 제공된다. 게임콘텐츠 제작 분야는 총 8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발지원금 3천만 원과 함께 서울게임콘텐츠센터(마포구 대방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입주 기회, 온라인 국제 콘텐츠 마케팅(SPP(Seoul Promotion Plan) 비즈매칭을 비롯해 협력 파트너사와 연계한 후속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게임콘텐츠 마케팅 지원 분야는 총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경쟁력을 갖춘 게임기업이 게임의 종류와 목적, 대상 사용자 등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금을 지원하며,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후속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편당 2천만 원의 자율형 마케팅 자금을 1차 지원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 3편에 대해 3천만 원의 2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하여 후속 지원을 한다. 또한 효과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UA(User Acquisition Marketing)마케팅 전략 및 노하우에 대한 파트너사의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게임은 미디어, 디자인, 교육산업 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수출 효과산업으로, 시는 중소기업개발사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닌 게임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도록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 게임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산업진흥원 누리집 내 기업지원 및 서울사업, 공시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산업진흥원 게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수/기자

삼성, 전국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 지방 계약학과 신설

삼성전자는 27일 반도체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에 국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울산/대구/광주 등 3개 과학기술원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과학기술원 세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은 UNIST 40명, DGIST 30명, GIST 30명 등 연간 100명으로, 삼성전자와 세 학교는 5년간 반도체 인재 총 5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울산/대구/광주 과학기술원에 신설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석사 교육을 통합한 최초의 '학/석 통합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기간은 총 5년이다.

특히 반도체 미세화 한계 돌파를 위한 반도체 공정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 반도체 계약학과 3곳의 교육 과정은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반도체 클린룸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되며, 반도체 설계와 S/W 등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융합 수업도 병행한다.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반도체 계약학과에 더해, 공정 전문가를 육성하는 계약학과 3곳이 이번에 신설됨으로써, 계약학과를 통해 ▲설계 ▲S/W ▲공정 등 반도체 핵심 분야의 인재를 골고루 양성해 내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번 3개 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과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국 7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급증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 국내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연세대('21년), KAIST('22년), 포항공대('23년)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반도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삼성은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취업이 보장된다. 매년 반도체 전문가 260명을 양성하던 기존 일부 계약학과도 정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여기에 3개 지역의 과학기술원까지 추가됨으로써 신설되는 계약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부터는 매년 7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 450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수속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번에 3개 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과 운영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국 7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급증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 국내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6년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연세대('21년), KAIST('22년), 포항공대('23년)와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 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반도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삼성은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취업이 보장된다.

매년 반도체 전문가 260명을 양성하던 기존 일부 계약학과도 정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여기에 3개 지역의 과학기술원까지 추가됨으로써 신설되는 계약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부터는 매년 7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 450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번 과학기술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로 울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전국적인 반도체 '인재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UNIST, DGIST, GIST 등 3개 과학기술원은 이번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로 각 지역에서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해 첨단 산업 현장에 배출하는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역 반도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 기업들과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풀림'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및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GIST, DGIST, UNIST는 27일 회사와 학교 관계자 및 해당 지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대구, 울산에서 각각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을 가졌다.

광주과학기술원 오토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 사장, 박래길 GIST 총장직무대행, 강기정 광주광역시, 이형석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구과학기술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남석우 삼성전자 제조담당 사장, 국양 DGIST 총장, 김중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인선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날 오후에 울산과학기술원 경동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석우 사장, 이용훈 UNIST 총장, 김두겸 울산광역시, 이상현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태석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는 "이번 계약학과 신설로 서울·대전·포항에 이어 대구·광주·울산에도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반도체

계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재를 지속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길 GIST 총장직무대행은 "반도체 계약학과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GIST의 우수한 교육·연구 자원과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양 DGIST 총장은 "DGIST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다. DGIST의 반도체 전문가가 지역 내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UNIST는 5년 안에 세계대학순위 Top 100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개원한 반도체 소재부품대학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과 함께 이번에 신설된 반도체 계약학과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UNIST 개교 이후 울산의 연구개발 지수가 상승하고 울주군 인구가 15% 증가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엔 반도체 계약학과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계약학과 ▲산학협력 지원 ▲박사 장학금 ▲지방 국립대 지원 ▲사내 설비를 활용한 대학 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 과학, 원천 기술 등에 대한 국내 신진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삼성미래기술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대전시,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 꿈꾼다

27일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발족식 참여

대전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7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개최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 이석봉 시 경제과학부시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 인프라를 시찰하고 관계부처, 시·도, 유관기관, 기업, 전문가와 함께 규제 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상호교류를 강화했다.

이날 대전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농업과 그린바이오 연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창업 지원을 위한 발전협의회(공공플랫폼)를 구축 및 협의회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실무 담당 기구를 조직하고, 각 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특히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농산물 생산·활용 시스템 전반에서도 변화가 요구되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특히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농산물 생산·활용 시스템 전반에서도 변화가 요구되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참여를 시작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집적화 및 활성화와 농업 미래성장을 이끌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석봉 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덕특구의 과학인프라, 대학의 고급 인력, 편리한 정주여건은 대전시만의 강점으로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된다면 중부권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15일 발표

한 대전 국가산단에 그린바이오 산업을 추가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대전시는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대덕특구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이스트와 충남대 등의 고급 인력과 편리한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그린바이오 산업의 집적화 및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의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원호/기자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150곳에 디자인 개발·견본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도내 섬유·패션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1 연결해 원스톱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지

소제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으로, 4월 1일을 시작으로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 동안 선착순 모집을 실시하며, 친환경 리사이클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섬유·패션 제품을 보유한 기업 총 150개사를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견본(의류/원단) 제작 비용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

중 50개사에 한해서 제품 3D 록복도 제작 지원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월별 모집 규모는 이자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태중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품질의 섬유제품에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매출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섬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전주시·남원시,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협력 강화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각각 남원시민과 전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전주시와 남원시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은 27일 남원시장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협약식'을 갖고, 전주시민과 남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와 남원은 고려왕조의 끝과 조선왕조의 시작이 닿아있는 지역으로, 고려 장군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육지에 잠입한 왜적을 섬멸한 후 개성으로 가는 길에 선조와 친지들이 살던 전주에 도착해 오목대에서 승전을 축하하며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을 그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도시는 또 최근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3년도 드론 실증도시'에 함께 선정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전주한옥마을에서 비빔밥 등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고산을 중심으로 '드론 산불 초기진화 실증'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남원시도 '2023 FAI 드론레이싱 세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전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드론산업 중



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날 "양 도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주시고, 직접 남원까지 오신 우범기 전주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 제도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4차 산업 핵심분야 드론 산업에

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모인 기금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게 되며, 참여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한 후 기부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3년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수상

떠돌이 신세된 '보물 묘법 연화경' 보호 촉구부터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 제정까지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서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정부, ▶행정부, ▶의회부, ▶국가공헌부, ▶사회공헌부, ▶미래경영부 등 매년 분야별 미래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성호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장기 미집행 공원보상사업 과정에서 떠돌이 신세가 된 대한민국 보물 '묘법 연화경' 소재지 파악과 문화재 보호를 촉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군포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에 한정하지 않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원 위상을 고양시켰다는 평가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움직이는 만큼 서울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며, "그런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을 대면하고 현장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어 의정활동 환경을 넓힐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향후 실질적으로 시민께서 겪으시는 불편함, 불합리함, 비효율적인 현안이 즉각 시정 변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상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정진하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민간영역 경영인, 변호사 등 2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광수/기자

(주)바이노텍 김유미 대표 마음의 고향 경산을 응원하다!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 김유미 대표

경산시를 방문한 ㈜바이노텍 김유미 대표는 27일 평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경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해 기부액 200만원을 선뜻 기탁했다.

㈜바이노텍은 경산에 소재한 영남대학교 내 테크노파크에 연구소를 둔 화장품 소재 개발, 건강을 위한 식품 개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약의 첨단 소재를 지속해서 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되고,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탄탄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다.

김유미 대표는 "최근 경산에 연구

소를 두면서 경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번 기부를 통해 경산과 한층 더 가까워짐을 새삼 느끼며, 앞으로 경산시가 K-뷰티 화장품산업의 메카로 더욱 성장하기 바란다"며 200만 원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고향이 아님에도 경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응원해 주시는 김유미 대표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경산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김유미 대표의 선행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향사랑e



음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고,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부자는 전국 농협창구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송광삼/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더불어민주당, 파주3)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민생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의원들의 정치



역량 강화와 공인으로서의 리더십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이용욱 의원은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

도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혜영/기자

Z O M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삼과섬 이곳에서 하니로 연결된다. 오목바위길, 영양가산길

물

영양이 태어난 곳: 영양호, 영양강, 영양천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얼

시냇물과 대나무: 영양사계곡, 영양대나무길

맛

사백떡을 이어온: 장계향의 음식다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영양연수정

영양 들려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삭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허계곡, 분신계곡, 침백공원, 축맥수원,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견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룡박물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계수석야생화전시관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citizen

이수영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연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재)오산문화재단 이수영 대표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 동시에 전문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과 공연 제공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공모사업 11개 공연선정으로 지원금 14억 4백만 원 확보"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

"열린음악회:국악신동 김태연 & 클라무오케스트라&퓨전국악 이희정밴드", "코미디 연극 '도둑배우'", '뮤지컬 허풍선이 과학쇼 장영실 VS 에디슨', '허튼소리(Corea Beats)' 등 완성도 높은 우수공연을 제공할 계획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 선정! 당선문화재단을 대표 기관으로 오산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안성시문화예술사업소, 익산문화관광재단, 하남문화재단 6개 기관과 제작사 에이치제이키즈(주) 협업을 통해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 공연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2023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오산문화재단이 함께하여 공연예술 창·제작 협력 환경 조성 및 유동 활성화를 추진. '뮤지컬 '파리넬리'', '연극 '그때도 오늘''공연기획을 계획 중이다.

"2023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사업'선정!

전통예술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재)오산문화재단은 공동주관으로 'LIVE 국악뮤지컬 '깨비 친구 삼살이''라는 우수한 작품 추진 예정이다.

[2023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중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선정!

오산문화재단과 상주단체 (유)브러쉬씨어터(어린이 콘텐츠 제작 단체)의 협업을 통해 '가족 뮤지컬 '드래곤 하이'', '리틀 뮤지션', '어린이 가족극 전우치전'을 계획 중이다.

이처럼 (재)오산문화재단은 공연문화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 내 공연문화 발전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기 위하여 기획공연 프로그램 강화에 힘쓰고 있다.

양시현/기자

경남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사전봄 조성[왕의 차진상식]개최!

4월 1일 서울시민들과 함께 어가·진상행렬 보이며 특색 홍보 펼쳐

경남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봄업 행사가 4월 1일 토요일 서울 정계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 행사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우리나라 인구 이천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널리 알릴으로써, 서울 시민과 함께 어울려 흥겹게 즐기고 엑스포에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고자 준비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다.

4월 1일 오후 2시 베테랑 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되는 이 행사는 광고에서부터 다양한 기수와 취타대가 이끄는 왕의 차(茶) 진상 행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조직위원장 기념사 및 내빈 축사, 진상식, 아름다운 궁중 무용을 선보이는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되며, 하동차(茶)시음회와 전시판매,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및 참가자들이 직접 엑스포 홍보 보드판을 들고 이색

표를 두고 있다.

또한, 공동조직위원장인 하승철 하동군수는 참여한 서울 시민들에게 하동 전통차(茶)의 우수성과 엑스포 개최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2004년부터 관내의 주요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하동차(茶)홍보단(단장 강영숙)의 하동만의 고급 녹차 시음 서비스는 이날 행사의 빼놓을 수 없는 백미로서, 이미 2015년부터 광화문에서 개최한 왕의 녹차 진상식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차(茶) 시음을 해오며 많은 관심과 인기를 사로잡고 있다.

한편, 2023하동세계차(茶)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茶)를 주제로 하고 정부가 승인한 공식 국제행사로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경상남도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동 경남 일원에서 31일간 개최된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국민과 함께하는 왕의 차 진상식"

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와 생태 이야기를 소개하는 차(茶) 천년관, 몸과 마음의 심신을 치유해 주는 웰니스관, 나라별·시대별 차의 역사와 문화,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월드티아트관, 차 관련 산업융복합관 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

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본 사전행사를 기점으로 엑스포 동안 다채로운 다례 체험, 각종 공연, 이벤트 등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하동차(茶)의 가치와 효능을 직접 느끼게 하고, 하동과 경남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도 연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장재현/기자

용인어린이상상의숲 '모여라! 상상해 봄 놀이터'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세상 모든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인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오는 4월 1일 봄맞이 특별행사 '모여라! 상상해 봄 놀이터'를 개최한다.

'개나리와 벚꽃이 가득한 상상의숲 놀이터'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특별행사는 상상미술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야외 광장에서 ▲미니가자, 어린이 농구, 블록 쌓기로 구성된 야외 놀이터 ▲반짝 반짝 내 이름표 만들기 등 5종의 문화예술 체험부스 ▲특별체험 '알록달록 우리가족 봄맞이 집꾸미기' ▲용인 엄마들과 함께하는 플라마켓 ▲아이버스커 공연 등이 운영되고, 내부 공간에서는 ▲열린도서관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책 공연 '마쭈와 신기한 돌'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별행사와 별개로 기존의 상상미술 전시 콘텐츠들도 정상 운영되며,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증정될 예정이다.

상상의숲은 용인특례시의 대표적

인 어린이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 및 특별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제61회 진해군항제에 '탱크'가 나타났다

K2전차, K9자주포 시내 중심에 무기체계 전시, 벚꽃과 함께 볼거리 제공

창원특례시는 제61회 진해군항제 축제기간 창원에서 생산되는 명품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전시하고 대한민국 방산 메카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진해군항제는 벚꽃-군항에 더해 처음으로 방산의 색깔을 입혀 진행되고 있으며, 군항제 기간 동안 중원로터리에 전시된 전차와 자주포가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기이다. 육군이 사용하는 주력 전차인 K2 전차(현대로템 협조)는 전자 제어 시스템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폴란드에 4.5조 원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9 자주포(육군종합정비합 협조)는 육군이 사용하는 155mm 자주포로 현재까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8개국에 수출된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최고의 자주포로서 1분에 6발의 포탄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으며 정밀한 사격과 기동성이 뛰어나다.



대한민국 대표 방산 도시의 자부심을 담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전시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해 군항제 행사기간 중원로터리에서 무료관람 할 수 있다. 10시부터 22시

까지 전시 및 포토존이 운영되어, 해외는 물론 전국에서 진해군항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행사를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영기/기자

문화도시 광명을 내가 직접! 우리의 아이디어로!

(재)광명문화재단은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2023 시민 제안사업 [문화지음소]'에 참여할 참여자(팀)를 모집한다. [문화지음소]는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 시민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규 사업 참여자의 ▲문화도시 광명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유주제', 기존사업 참여자의 ▲시민 의제 구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정주제' 두 가지 분야로 모집한다. 선정된 팀은 사전 컨설팅, 멘토링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성과 공유회 이후 시상상을 통해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광명문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문화지음소 활동을 통해 시민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문화도시 광명의 시민 워킹그룹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정보는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 열린광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용민/기자

2023년 1월 1일 내 고향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예천군

기부자

지역생산자

기부방법

기부한도

최대 합산 500만원까지
(다른 지자체 합산)

기부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시 16.5%)
-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답례품

- 예천장터(www.ycjang.kr) 쿠폰
- 예천사랑상품권
- 삼강주막 캠핑장 할인권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문의 | 예천군 재무과 ☎(054)650-6128

예천군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